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여수, 관광산업 기지개



5월 관광객 58만명 돌파... 전년 대비 34.8% ↑
거북선축제·야간콘텐츠 흥행... 투숙률 62.7%

5월 들어 여수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늘며 관광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여수를 찾은 방문객 수는 총 58만 37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 동기 대비로는 54.5%가 늘어난 규모다. 이번 관광객 증가세에는 황금 연휴와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이순신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통

제영 길놀이와 드론 라이트쇼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관광객들이 인근 낭만포차거리와 중앙동 일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체류형 관광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지역 주요 숙박시설의 투숙률은 62.68%로 집계돼 전월(54.9%) 대비 7.78%p 상승했다. 시는 단순 방문을 넘어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패턴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동도와 엑스포해양공원, 낭만포차 등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주요 관광지에도 방문객이 이어지며 해안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가 확산됐다. 이러한 흐름이 연간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북선축제 개최와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확충이 관광객 증가와 숙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와 함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발굴해 ‘다시 찾고 싶

은 관광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에 선정되며 ‘관광 메카’ 여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관광자원, 관광인프라, 관광객, 관광산업, 관광정책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종합지수 104.24점을 획득해 종합 1등급을 달성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국가중요농업유산 가치 확산

11월까지 전통차 체험관광 지원

보성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전통차(음식)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한국차박물관, 가막재 다원, 녹차향카페, 보림재다, 임병문 다원 등 지역 23개 지정 체험장에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차 만들기 및 차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차운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며, 보성군은 차(음식) 만들기 체험비 1인당 2만원 또는 차량 임차료(거리별 40만~55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시 관광협회(062-224-4486)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오랜 세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형성된 소중한 농업유산이다”며 “이번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보성을 찾아 전통차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66@gwangnam.co.kr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차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고흥, ‘오감 체험’ 분청문화의날 감성축제

내일 박물관캠프핑장 일원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16일 고흥박물관캠프핑장 일원에서 ‘2026 분청문화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흙과 바람, 가족의 하루’를 주제로 분청사기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물레 체험과 도자기 페인팅 등을 즐기는 ‘분청체험 놀이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패밀

리 캠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변검·벌룬쇼’, 분청도자기 경매와 가족 퀴즈쇼 등 현장의 열기를 더할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유물을 관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박물관 캠프핑장을 활용한 ‘제류형 문화행사’로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현장에 머물며 분청사기의 매력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운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곡성, 세계장미축제 안전관리 강화

곡성군이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과 의견을 모았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소통마루에서 제3회 곡성군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창모 곡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등 관계기관장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 인파 밀집, 화재 및 폭발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테러, 교통대책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 살폈다. 군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축제 개최 전 가설건축물과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김유연 기자 hnnews1@gwangnam.co.kr



‘모은 캔은 나눔으로 탄소중립 실현’ 장흥군새마을회는 최근 지역 내 농가와 경로당 등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는 ‘에코프렌드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버려진 알루미늄 캔을 직접 수거했다. 특히 수거된 캔은 트레터를 황해로 압축 작업까지 진행하며 효율적인 재활용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진제공=장흥군새마을회

순천, 송광사 등 국가문화유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탐방로 정비·방재시스템 보수 총 75건 사업...138억원 투입

순천시는 2026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쓴다. 올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분야 확정예산은 총 138억원 규모로,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등 총 75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광사 탐방로 정비 설계용역, 선암사 개방형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 선암사 승선고 보충처리, 순천향교 동계 해체보수 등이다. 시는 현재 사업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자 선정 등을 완료했으며, 설계승인과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별 선급금 지급과 공정 관리를 통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을 활용한 추가 보수공사도 병행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제공=순천시청

특히 송광사·선암사·정혜사 등 주요 목조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경비원 운영을 지속 추진해 화재 및 재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방염포 구입·배부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선암사 관리소 건립, 송광사 천자암 요사채 건립, 동화사 일주문 건립, 동화사 공양간 이축, 향림사 요사채 개축 등 일부 사업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장마철 집중호우 이전 사업 완료 목표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이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확보된 만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람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매실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지원한다

26일부터 내달 19일까지...인력 부족 해소 기대

광양시는 매실 수확철을 맞아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시는 매실 수확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은 대표적인 매실 주산지로, 지역 내 매실 재배 규모는 1127ha. 재배 농가는 3170호에 달한다. 수확기인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

비를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매실 첫 출하일이 20일 열릴 예정인 만큼, 시는 출하 전후 늘어나는 현장 작업 수요에 대응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사무소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참여 인력을 연계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기울인다. 지원 대상은 일손 확보가 어려운 농가

를 우선으로 한다. 시는 고령농가, 영세농가, 장애농가 등 자체적으로 인력을 마련하기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은 광양시 스마트원장 작업 수요에 대응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농촌일손돕기는 지역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기업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jin@gwangnam.co.kr

장흥, 31일까지 막개비 할인 공휴일 등 할인 쿠폰 이벤트

장흥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공배달앱 ‘막개비’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8일 시작에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금·토·일 및 공휴일에 ‘막개비’ 앱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할인쿠폰은 1인 1회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공배달앱 ‘막개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로, 1.5%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임점 시 별도의 임점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